

# 융복합시대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옥선\*, 백진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exual-Materials Addiction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uk-Sun Cho\*, Jina Paik\*\*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에서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KCYPS 중1 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부합되는 2,15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방임, 자아정체성 및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적인 영향성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부모방임, 자아정체성, 성인용매체 몰입, 경로분석,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exual-materials addiction, and prov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r the study, the data(n=2,157)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path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neglect influenced negatively adolescents' self-identity. Second, parents' neglect had a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s' sexual-materials addiction. Third, parents' neglect directly influenced adolescents' sexual-materials addiction and its' effect was indirectly mediated by the subject's self-identity.

**Key Words** : Parents' Neglect, Self-Identity, Sexual-Materials Addiction, Path Analysis, Convergence

Received 5 February 2015, Revised 8 March 2015  
Accepted 20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Jina Paik (Dept. of Social Welfare)  
Email: jpaik1@hanafos.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장소에서든지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장시간 이용에 따른 중독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10대 청소년이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고, 가정에서도 빈번하게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보다 쉽게 성인용매체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54.5%는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최초 경험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접함으로써 점점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10대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은 무절제한 성행위, 성폭력, 성매매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사회학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상업화된 성에 노출시킴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서 소외시키고[3], 특히 성인용매체 몰입을 가속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나 성인용매체 몰입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다[4]. 부모의 부정적 양육형태는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에 처한 청소년에게 인터넷에 몰입하게 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도피처 역할과 지지를 받아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5]. 이는 청소년을 성인용 매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 무관심하거나 친밀감이 낮을 경우 청소년들은 성인용 매체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6]. 또한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교육 차원의 칭찬과 처벌이 없고,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인터넷을 과다사용 할 경우 성인매체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7], 부모가 청소년들을 방임하거나 유대관계가 낮으면,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접근하려는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9].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무시, 거부, 적대적인 양육을 경험할 때,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10], 성인용 매체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이 인터넷을 더 가까이 접하고 쉽게 성인용매체에 몰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세계인 인터넷 공간 및 스마트폰 공간세계는 규제되지 않는 자아정체성을 유발하고, 많은 개체가 익명성으로 존재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1]. 청소년의 경우 현실세계 뿐 아니라 가상세계에 대한 몰입이 높고 사회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수록 가상현실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될 여지가 높다[12]. 그러나 가상공동체는 청소년의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산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의 자아정체성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13].

자아정체성과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정체성과 성인용매체 몰입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아직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자아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아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동하여 사이버 성중독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성폭력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14,15,16].

청소년기는 부모 방임 여부에 따라 발달주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는 경우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부모의 양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자아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18], 따라서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이 인터넷에 중독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그러나 부모의 방임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성인용매체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성적 일탈 행위를 초래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여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자아관과 뚜렷한 자아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성인용매체 몰입을 상대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방임과 성인용매체 몰입 간에 자아정체성의 매개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며,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을 조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성인용매체 몰입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모의 방임과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서 자아정체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적 일탈행위 및 예방책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매체몰입 사이에서 자아정체성은 어떤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패널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에 의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KCYPS(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중1패널 3차년도(2012)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부합되는 2,157명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청소년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94.2%), 남학생, 여학생의 사용분포(각각 49.7%, 50.3%)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본인의 성적은 '만족'과 '매우 만족'이 1,331명(61.7%)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가 1,724명(7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부모+자녀' 189명(8.8%), '(한)조부모+(한)부모+자녀' 15명(7.2%)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연소득은 4,000만원이상 ~ 6,000만원미만이 가장 많고(32.1%), 다음으로 2,000만원이상 ~ 4,000만원미만(28.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50.0%), 고졸이하(39.9%)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하(52.0%), 전문대졸이상(39.3%)순으로 나타났다.

### 2.2 측정도구

#### 2.2.1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 척도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측정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의 Cronbach's alpha값은 0.863로 나타났다.

#### 2.2.2 부모방임 척도

부모방임 척도는 3문항으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발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부모 방임의 Cronbach's alpha값은 0.790이다.

#### 2.2.3 자아정체성 척도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척도는 3문항으로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 한다',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등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정말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이 잘 확립된 것을 뜻하며, 자아정체감 Cronbach's alpha값은 0.630<sup>1)</sup>으로 나타났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도와 관련된 변인 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과 관련성

1) 사회과학분야에서 신뢰도 값이 .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하여 척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s' neglect	2,157	1.00	3.33	1.75	.535	.053	-.706
self-identity	2,157	1.00	4.00	2.72	.442	.409	.495
sexual-materials addiction	2,157	1.00	3.00	1.69	.257	.334	5.224

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확인과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간 경로계수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활용한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기술한 내용은 <Table 1>와 같다. 각 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sd)를 살펴보면, 부모방임 평균 1.75(sd 0.535), 자아정체성 평균 2.72(sd 0.442), 성인용매체 몰입 평균 1.69(sd 0.25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 중 부모방임, 성인용매체 몰입의 평균은 중간값에 비해 약간 낮으며, 자아정체성의 평균은 중간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방임, 성인용매체 몰입 변수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연구 대상자가 청소년의 문제 집단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며, 첨도는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각 변수들을 경로분석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행렬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방임은 성인용매체 몰입( $r=0.142$ ,  $p<.01$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아정

체성( $r=-0.283$ ,  $p<.01$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정체성과 성인용매체 몰입( $r=-0.122$ ,  $p<.01$ )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neglect	self-identity	sexual-materials addiction
parents' neglect	1		
self-identity	-.283**	1	
sexual-materials addiction	.142**	-.122**	1

\*\* $p<.01$

####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 3.2.1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인 부모의 방임,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청소년 성인용매체 몰입도 등을 포함한 측정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측정모형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초기측정모형의 분석결과  $\chi^2=5184.329$ ,  $df=454$ ,  $p<.001$ , SRMR=.070, RMSEA=.070, CFI=.845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낮은 표준화계수값과 설명이 낮은 변수를 제거하고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수정측정모형의 분석결과,  $\chi^2=829.154$ ,  $df=51$ ,  $p<.001$ , SRMR=.043, RMSEA=.084, CFI=.927 등의 값을 나타내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요인 부하량은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반영하여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Goodness-of-fit statistics

First model	name of fit index	$\chi^2$	df	p	SRMR	CFI	RMSEA
	index	5184.329	454	.000	.070	.845	.070
Final model	name of fit index	$\chi^2$	df	p	SRMR	CFI	RMSEA
	index	829.154	51	.000	.043	.927	.084

3.2.2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Table 4>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용매체 몰입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구조모형에서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적정수준을 보여주더라도 변인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적절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는 적정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50$ ,  $t=-10.813$ ,  $p=.000$ ). 이는 발달과정상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있어,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59$ ,  $t=5.172$ ,  $p=.000$ ). 즉,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면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이를 통해 성인용매체 몰입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19]에서 주장한 것처럼 방임이 지위비행(음란물 포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beta=.177$ ,  $t=5.012$ ,  $p=.000$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를 방임할수록 청소년 시기의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용매체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Fig. 1]은 성인용매체 몰입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초기연구 모형의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chi^2=829.154$ ,  $df=51$ ,  $p<.001$ ,  $SRMR=.043$ ,  $RMSEA=.084$ ,  $CFI=.927$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모든 경로의 요인부하량이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 값 .9이상, 개념신뢰도 값 .8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 간 상관도가 낮아 요인 간 신뢰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Estimated Model

Path	B	$\beta$	S.E.	C.R.
parents' neglect → self-identity	-.450 ***	-.394	.042	-10.813
parents' neglect→sexual-materials addiction	.056 ***	.159	.011	5.172
self-identity→sexual-materials addiction	.055 ***	.177	.011	5.012

\* $p<.05$ , \*\* $p<.01$ , \*\*\* $p<.001$

3.2.3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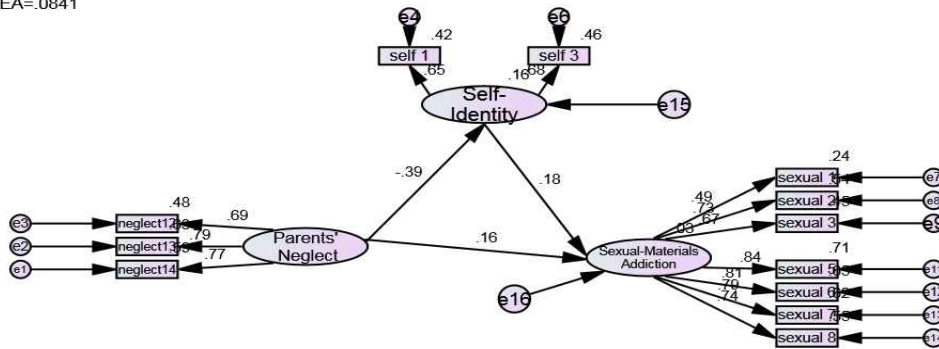
<Table 5>은 부모방임이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이르는 경로를 분해한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결과이다.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직접적인 효과( $\beta=-.394$ )가 있고,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도 직접적인 효과( $\beta=.177$ )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 방임은 성인매체 몰입에 직접적인 효과( $\beta=.159$ )가 있고, 간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rents' neglect → self-identity	-.394		-.394
self-identity→sexual-materials addiction	.177		.177
parents' neglect →self-identity→sexual-materials addiction	.159	-.070**	.089

\*\* $p<.01$

Chi-square=829.154  
 df=51  
 p=.000  
 SRMR=.0426  
 CFI=.927  
 RMSEA=.0841



[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접효과( $\beta=-.070, p=.007$ ) 및 총효과( $\beta=.089$ )의 영향력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방임과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연구모형의 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으로 분석하였으며,  $p <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이르는 경로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자아가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수록 정체감 유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생애발달주기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자아를 확립하는 단계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20].

둘째,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청소년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할수록 성인용 매체에 몰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가 청소년 행동에 무관심한 경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21], 결국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22].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방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인터넷으로 도망치게 되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성인용 매체 유혹의 손길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은 가정에서 빈번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방임은 자녀를 성인용 매체에 몰입하도록 연결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아정체성은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터넷 이용이 많을수록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을 가상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인터넷을 과다 이용하게 되고, 이는 성인용 매체 유혹에 있어 취약점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17]의 선행연구와도 유사하다.

넷째, 자아정체성은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방임되어 정서적 어려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으로 인해 자아가 손상된 청소년들은 가상세계에서 안식과 정체성을 얻고자하여 인터넷으로 도피하고, 결과적으로 성인용 매체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잘못된 성행동을 모방하여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이 부모의 양육 방식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확립을 위한 예방 및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일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속에 성인용매체 몰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본 연구가 활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12)에서는 이 두 내용이 분리되어 조사되었다. 성인용매체 몰입에 관한 질문이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라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이버중독 관련 특수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변수간의 관계가 다소 약하게 나타나는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둘째, 본 연구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자기 보고식으로 기입되어 조사대상자의 주관에 배제하기 어려웠으며, 각자 기입을 꺼려하는 문항으로 인한 무응답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셋째, 이미 조사된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구성이 제한적이었고, 그에 따른 논의의 확대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http://www.kisa.or.kr/main.jsp>, 2013.
- [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ttp://www.mogaha.go.kr>, 2012.
- [3] D. D. Mclean · A. R. Hurd · N. B. Roers, *Leisure and Recreation in Modern Society*. 7th ed. Johns and Bartlett Publishers, Massachusetts, 2005.
- [4] B. N. Kim · H. I. Choi, Effects of Study over 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9, No. 1, pp. 1-25, 2013.
- [5] M. K. Jang ·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Need for Internet Use and Parent Related Variables on Gam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 19, No. 4, pp. 1125-1138, 2007.
- [6] Y. O. Nam · S. J.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Psychiatric Symptoms to Sexual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2, No. 1, pp. 35-49, 2005.
- [7] M. J. Cho, The Effects of Adolescents' Depression, Anxiety, and Parents' Laissez-faire Parenting on Internet Addiction: Moderating Effects of Self-control.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0, No. 1, pp. 15-25, 2012.
- [8] G. S. Mesch, Social Bonds and Internet Pornographic Expo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32, No. 3, pp. 601-618, 2009.
- [9] M. L. Ybarra · K. J. Mitchell,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ual Research*, 36, pp. 237-249, 2005.
- [10] J. Y. Youn,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on the Addictive Use of Interne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2001.
- [11] H. S. Kim · J. G. Lee, Changes of Leisure Life in the Multimedia Ag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18, No. 1, pp. 57-85, 2000.
- [12] H. S. Kim · J. G. Lee, Changes of Leisure Life in the Multimedia Age.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Vol. 18, No. 1, pp. 57-85, 2000.
- [13] J. H. Park · D. S.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Identity of a Pupil in Middle School. *生活指導研究*, Vol. 23, No. 1, pp. 185-207, 2004.
- [14] S. H. Jang · Y. J. Park, Effects of Teenagers' Ego-Identity, School Life Adaptation, and Stress on Internet Addiction. *Kyungshung University Institute of the Humanities*, Vol. 15, No. 2, pp. 195-346, 2010.
- [15] Y. O. Nam, A Study on the Psychosocial Variables of the Youth's Addiction to Internet and Cyber Sex and their Problematic Behavio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 50, pp. 173-207, 2002.

- [16] Sulder, Internet Addiction: in a Nutshell. 2000.
- [17] J. E. Marcia,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59-187,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0.
- [18] C. S. Lee, The Bible's Counselling of Parents' Neglect and Adolescents' Self-Identity.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2009.
- [19] J. S. NAM, Articles: An Effect of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on Juvenile Status Delinquency - Focused on Adolescents in the Gangwon Provice -.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Vol. 5, No. 1, pp. 199-226, 2011.
- [20] J. S. Lee · H. S. Goo · I. J. Cho,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and Self-identity.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41, No. 1, pp. 143-168, 2013.
- [21] Y. J. Lee, A Study on Parent-Children Relation Influences on Internet Excess Utility of Adolescent in Digital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9, No. 6, pp. 103-111, 2011.
- [22] H. S. Park · S. Y. Jung, Predictors of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No. 3 pp. 592-607,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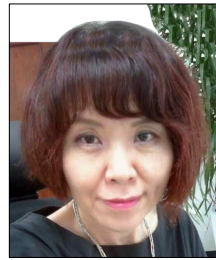
#### 조 옥 선(Cho, Ouk Sun)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강사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여성  
· E-Mail : sun16070@naver.com

#### 백 진 아(Paik, Jina)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 사회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